
GKEDC-KAS 전시교육 협력사업 사전협의를 및 유관기관 사례조사 결과보고서

2022. 8. 8. - 8. 13.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한국개발연구원

1 출장 배경 및 목적

-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KDI가 운영 중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이하 GKEDC)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내외에 공유하기 위하여 전시, 교육,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출장은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GKEDC의 전시 및 교육 사업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벤치마킹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됨.
 - GKEDC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재 전시 리노베이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시사점을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자 글로벌 위기 등에 관한 전시 및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독일은 유럽 국가 중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유수의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위치하고 있음. 특히 혁신 담론이 형성되는 예술중심도시인 베를린은 국공립 미술관을 통합 연계한 ‘박물관 섬’과 미래 핵심 이슈를 최신의 전시기법으로 표현한 Futurium 전시관 등이 존재하는 곳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시 기법 및 연출 방식을 체득하여 GKEDC 전시 및 교육 사업에 적용하고자 함.
 - 특히, 독일은 전쟁의 상흔을 놀라운 생명력으로 극복하고,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며, 이에 따라 전시 주제 및 스토리텔링 등에 있어 최적의 벤치마킹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동 출장 일정을 통해 2023년 한-독 수교 140주년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도 진행될 예정임.
 - GKEDC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KAS(Konrad-Adenauer-Stiftung, 이하 KAS)* 및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사업 또는 협업 추진 가능성을 협의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양국 교류의 역사 및 미래 방향에 대한 세미나 및 기념행사 개최, 관련 기획전시 및 연계 교육 사업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임.

- * 1955년 독일 기독교민주당 재단으로 설립된 KAS는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독일 각 연방주 소재 재단의 교육 포럼 및 한국을 포함한 70여 개국 지역사무소에서 경제, 안보/외교, 혁신(모빌리티/자율시스템/스타트업)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출장개요

- 출장기간: 2022년 8월 8일(월) ~ 13일(토)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장지: 독일 베를린
- 주요 활동사항
 - (기관소개) GKEDC의 과업 및 주요 활동 전반에 대한 소개를 통해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GKEDC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업수요 파악)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전시 및 행사 개최 관련 구체적인 수요와 추진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진행방향 관련 협의
 - (유관기관 사례조사) 독일의 역사, 경제, 사회 발전 등의 내용을 전시 및 교육으로 구현하고 있는 대표기관인 독일과학기술박물관, 독일역사박물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Futurium 전시관 등을 방문하여 관련 사례조사를 수행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아이디어 모색
- 출장자(총 2인)

#	성명	소속	직함	역할
1	김순한	KDI GKEDC 전시기획팀	전시기획팀장	사업관리자
2	김민정	KDI GKEDC 교육개발팀	전문연구원	사업실무자

3 출장일정

□ 주요 일정

날짜	시간	일정	비고
8/8(월)	11:50	[이동] 대한민국 인천 출발	대한항공 KE901 *비행기 연착으로 익일 환승
	19:30	[이동] 프랑스 파리 도착	
8/9(화)	09:45	[이동] 프랑스 파리 출발	에어프랑스 AF1734
	11:30	[이동] 독일 베를린 도착	
	12:30-13:30	[이동] 호텔 이동 및 체크인	
	15:30-17:00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17:30-19:00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독일스파이박물관	
8/10(수)	09:30-11:00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독일과학기술박물관	
	14:00-15:30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독일역사박물관	
	16:00-17:30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Futurium 전시관	
8/11(목)	10:00-11:30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14:00-16:30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KAS	
	17:00-18:00	[코로나 검사] 출국 전 PCR/신속항원 검사	
8/12(금)	10:00-11:00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Topography of Terror	
	11:30-12:30	[이동] 호텔 체크아웃 및 공항 이동	
	15:05	[이동] 독일 베를린 출발	오스트리아항공 OS230
	16:20	[이동] 오스트리아 비엔나 도착	
	18:40	[이동]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발	대한항공 KE938
8/13(토)	12:25	[이동] 대한민국 인천 도착	

4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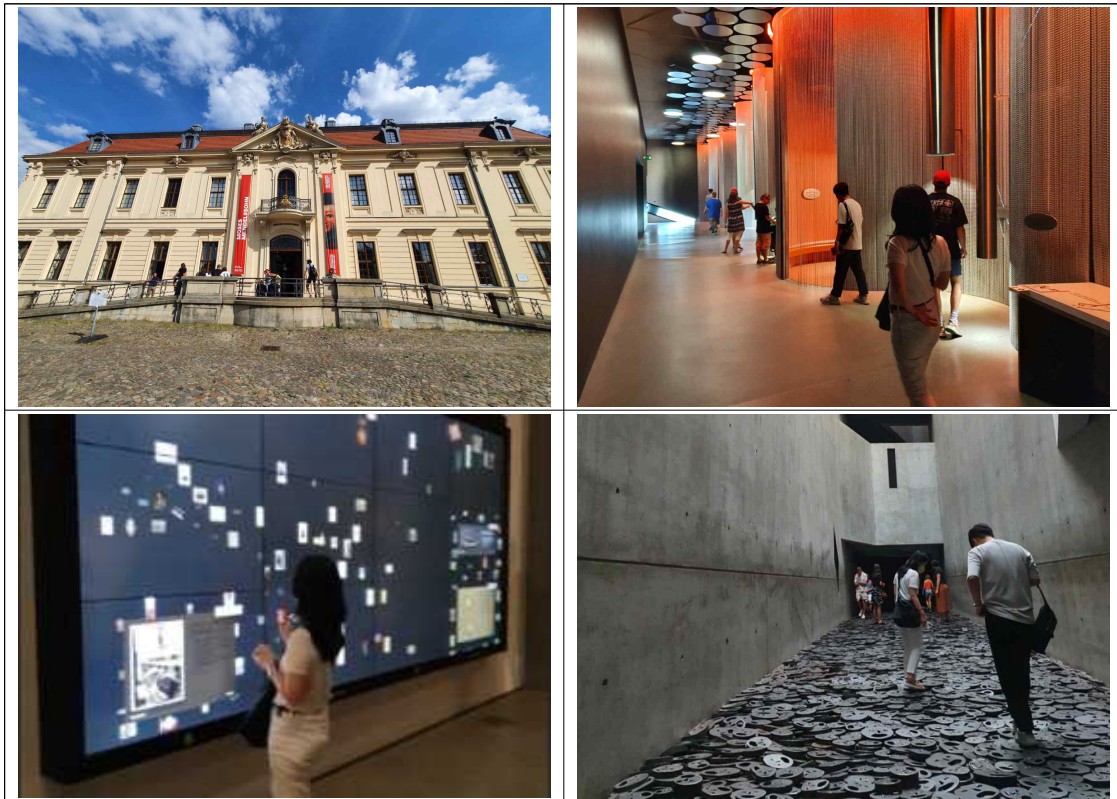
1.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 일 시: 2022년 8월 9일(화) 15:30-17:00

□ 주요 내용

- (주제) 독일의 유대인 역사와 현재
- (특징) 독일 유대인의 역사를 다루는 전시 및 홀로코스트 기념관으로 관련 세부 주제별로 시청각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체험물, 기념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
 - 독일 유대인의 역사를 대주제(추방, 홀로코스트, 지속)로 구분하여 주제별 내용을 층별로 구성함.
 - 유대인 역사의 주제별 내용을 다루되, 유대인의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시각적인 학습이 가능
 - 미디어 콘텐츠와 체험물이 적절히 배치되어 관람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음. 특히 터치패널을 활용한 자료 열람, 미디어 테이블의 모형 위에 상영되는 설명 영상 등은 관람자가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시관의 킬링 콘텐츠 중 하나인 'Shalekhet(낙엽)'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1만개의 고통어린 표정의 얼굴 모형을 바닥에 배치하고, 관람객이 전시물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구성. 관람객이 얼굴을 밟는 행위, 얼굴 모형의 표정, 철판 모형을 밟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청각적 자극 등 관람객의 여러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감정적 동요를 야기하고 홀로코스트의 참혹함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
- (시사점)
 -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은 특정 분야의 역사를 다루고, 그 안에서도 주제별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GKEDC의 전시관과 유사함.
 - 유대인의 추방, 홀로코스트, 현재의 모습 등을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하지만, 그 안에서도 음악, 미술작품, 생활상에 관한 유물 등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유대인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됨.
 - GKEDC 역시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의 생활상과 문화, 정서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콘텐츠를 추가한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임.
 - 체험형 콘텐츠의 경우 관람객의 여러 감각들을 자극하는 구성이 인상적이었음. 전시 연출 또는 교육 운영 시 관람객/학습자의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의 자극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체험방법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함.

□ 관련 사진



2.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독일스파이박물관

□ 일 시: 2022년 8월 9일(화) 17:30-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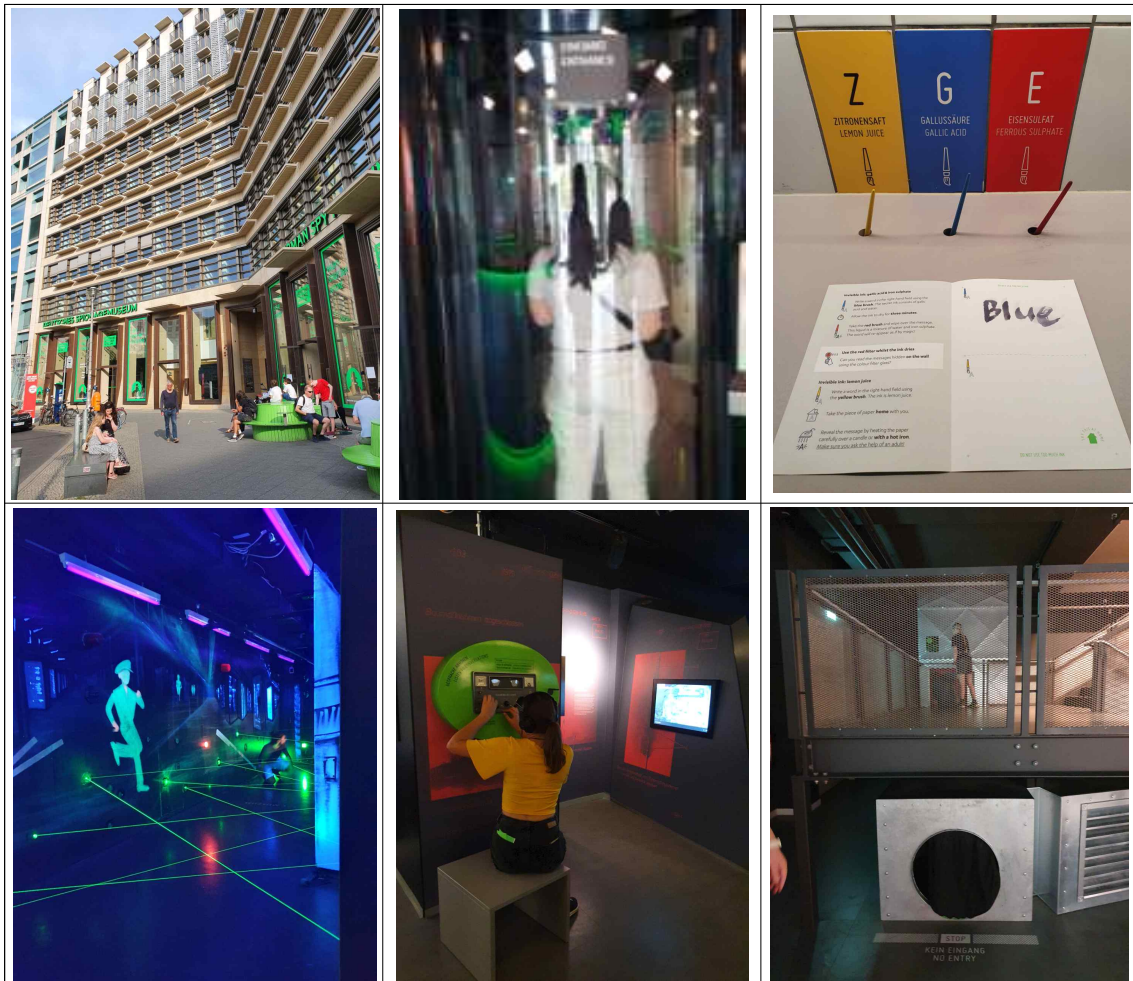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주제) 스파이 및 첩보에 관한 역사
- (특징) 스파이, 첩보에 관한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관련 체험형 전시물, 장비, 유물들로 구성
 - 전시 콘텐츠의 대부분이 체험형·참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스파이들이 사용했던 실제 장비를 살펴보거나, 다양한 스파이 활동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버그 찾기, 레이저 미로 탈출, 암호 해독, 금고 열기 등)
 - 출입구, 계단 등 전시관의 동선 곳곳과 유희공간 또한 스파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예: 입장권의 바코드를 찍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회전 출입구, 계단 구석의 환풍구 모형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미끄럼틀 등)
 - 스파이의 역사 및 구체적인 활동, 이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와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성인 관람객 및 학습자에게도 흥미로운 콘텐츠로 여겨지며, 적극적인 참여 유발

○ (시사점)

- 독일스파이박물관은 체험형 콘텐츠의 강점을 느낄 수 있었던 곳으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위가 관람객의 집중력과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함.
- GKEDC 역시 체험형 콘텐츠가 많이 있으나, 다양한 연령층이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좀 더 적극적인 신체활동 또는 고민이 필요한 게임형 콘텐츠를 적용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유물, 모형을 전시할 때 영상물을 조합해서 텍스트 위주의 설명이 아닌 시각적·청각적 설명을 제공하거나 동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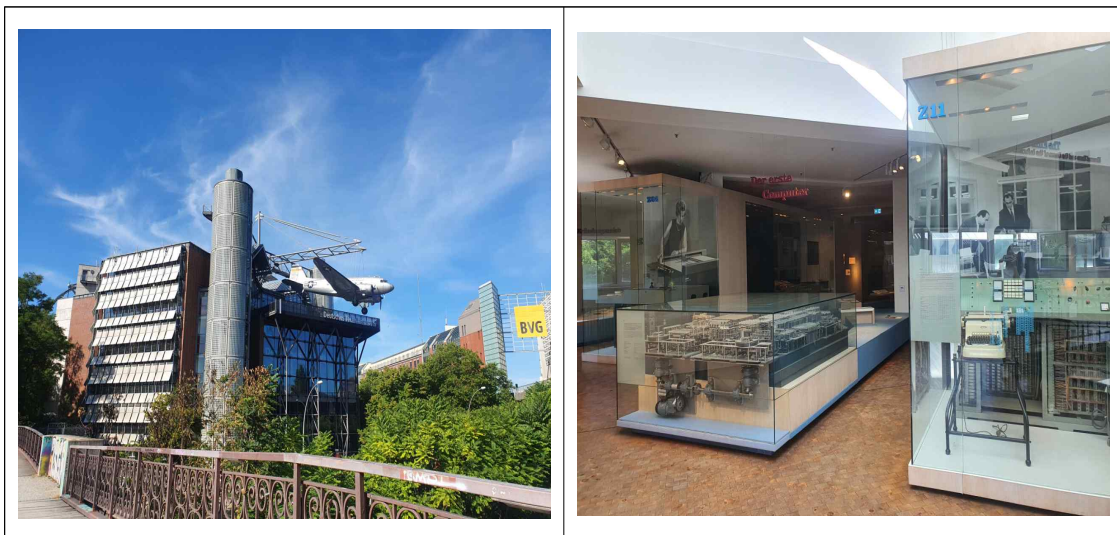
3.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독일과학기술박물관

□ 일 시: 2022년 8월 10일(수) 9:30-11:00

□ 주요 내용

- (주제) 독일 과학·기술의 역사
- (특징) 독일의 과학 및 산업기술, 교통수단 등의 발전에 관한 유물, 자료, 체험물 등을 전시
 - 철도, 비행, 도로, 기계, 컴퓨터, 통신, 섬유, 보석가공, 필름 기술, 화학 등 과학 분야별 다양한 제품 및 기술에 관해 전시
 - 유물 전시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전해온 산업 제품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실물 전시를 통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움.
 - 다만 체험형태의 콘텐츠는 적으며, 전시물과 시설 안내에 대한 영문 설명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 대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듯 보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며, 참여 기회가 없음.
- (시사점)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산업 기술과 제품들을 실물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기에 과학·기술의 변천사를 순차적으로 학습하기에 용이하지만, 과거에 대한 콘텐츠 비중이 높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 과학, 산업, 기술의 발전은 실물을 통한 정보 전달이 효과적임을 확인했으며, GKEDC 역시 산업발전에 관한 과거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의 현황과 미래 이슈에 관한 전시 및 교육 콘텐츠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GKEDC 역시 외국인 방문객이 빈번히 방문하는 공간이기에 전시 및 교육 공간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직관적인 안내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본다면 좋을 것임.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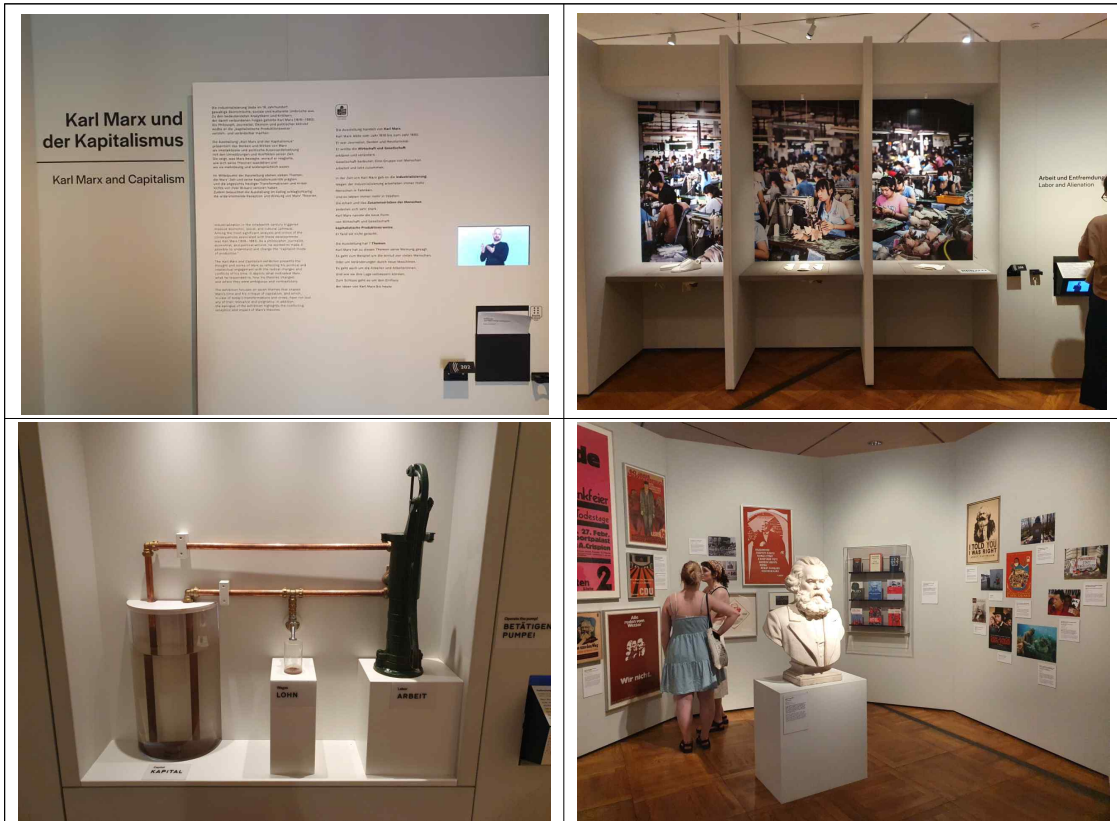
4.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독일역사박물관

□ 일 시: 2022년 8월 10일(수) 14:00-15:30

□ 주요 내용

- (주제) 독일의 철학적, 윤리적, 역사적 발전 과정
- (특징) 독일의 국립 역사박물관으로 독일의 역사 및 전반적인 독일 사회의 발전 과정을 전시
 - 상설전시관은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휴관 중으로, 기획전시관(칼 마르크스와 자본주의, 리하르트 바그너와 감정의 국유화, 1978년 이후 프랑스·폴란드·독일의 시민권, 앙겔라 메르켈의 초상화)만을 운영
 - ‘자본주의’, ‘시민권’ 등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무형의 콘텐츠를 다루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 사진, 영상, 관련 인물의 스토리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움.
 - 체험형 콘텐츠는 거의 없으나 전시 주제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개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물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움(자본-노동-임금의 관계, 투자·자유경쟁 등 기업의 필수 요소 등)
 - ‘칼 마르크스와 자본주의’ 전시의 경우, 모든 콘텐츠가 음성 설명, 점자, 수화영상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됨.
- (시사점)
 - 독일역사박물관은 철학·윤리·역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경제발전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GKEDC와 유사한 점이 많음.
 -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스토리로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개념의 원리를 쉽게 표현하여 시각화하고 체험요소를 가미한 콘텐츠는 GKEDC에서도 참고하여 활용할만함.
 - 전시관은 장애인이 체험하고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공간이지만, 이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배려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GKEDC 역시 선진적인 전시·교육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임.

□ 관련 사진



5.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Futurium 전시관

□ 일 시: 2022년 8월 10일(수) 16:00-17:30

□ 주요 내용

- (주제) 미래 이슈와 인간·자연·기술의 공존
- (특징) 기후, 주거, 식량, 기술 등 미래 핵심 문제에 대한 체험형 전시
 - 미래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전시로, 인간·자연·기술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다룸.
 - 미래에 어떻게 일하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자연을 더 이상 해치지 않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양한 전시 매체를 통해 전달함.
 - 전시 대부분이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관람객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인상적임. 입장 시 AI로봇에게 전자칩이 내장된 팔찌를 받게 되는데, 관람객은 팔찌를 착용하고 전시물마다 제시하는 질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객관식 답을 골라 팔찌를 터치하면, 전시관람 후 미래 이슈에 관해 어떤 생각/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 유형을 알려줌.
 - 미래 이슈에 관한 전시 콘텐츠 각각의 내용이 깊이가 있으며, 자세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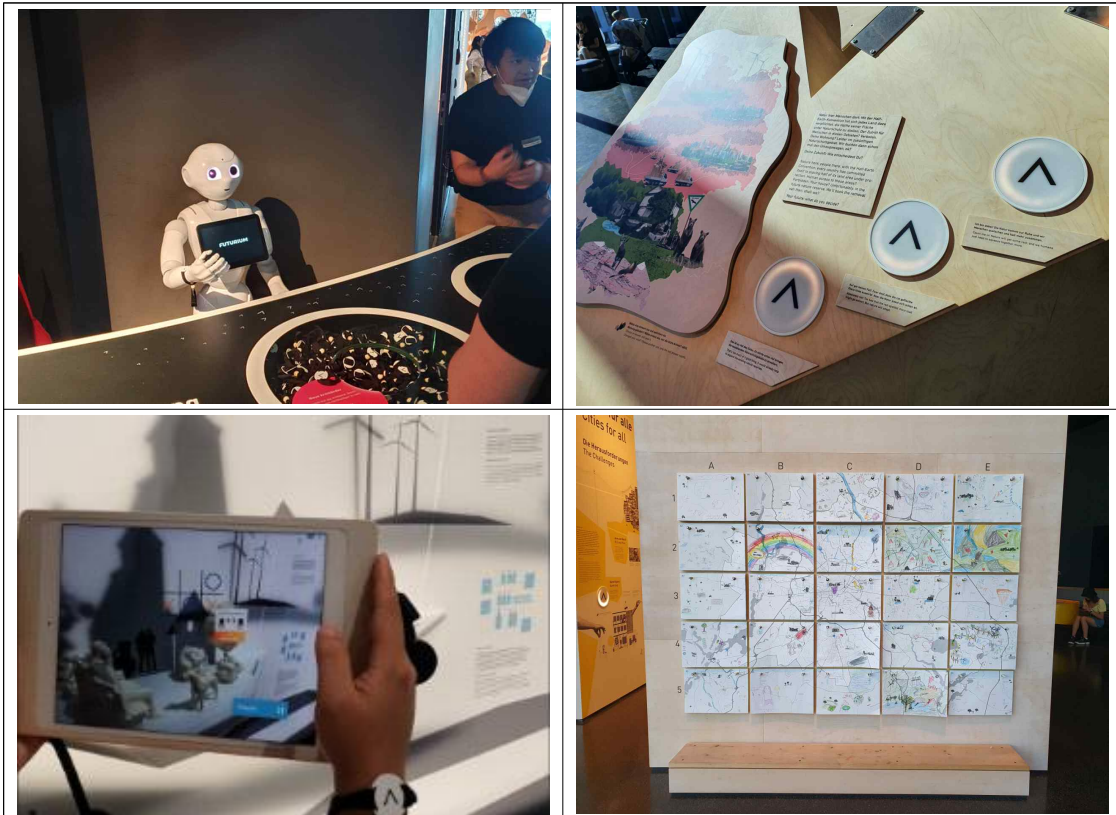
명과 적절한 체험요소가 매칭되어 있음.

- 중학생 이하의 학생들에겐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콘텐츠별로 난이도가 상이하기에 초등학생부터 성인 대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선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됨.
- 전시공간은 예술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예술작품과 전시 콘텐츠를 조화시켜 관련 메시지를 전달함.

○ (시사점)

- Futurium 전시관은 콘텐츠의 내용이 다소 어렵고,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나, 콘텐츠 내용의 참신함과 흥미로움으로 관람객의 집중과 관심을 이끄는 강점이 있었음.
- GKEDC 역시 일반인들이 접하기에 다소 어려운 '경제'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메시지와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으며, 관련 연구 과정 또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임.
- 전시관 전반적으로 관람객/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결과물을 모아 하나의 전체적인 작품을 만드는 활동 등은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면 유익할 것으로 보임.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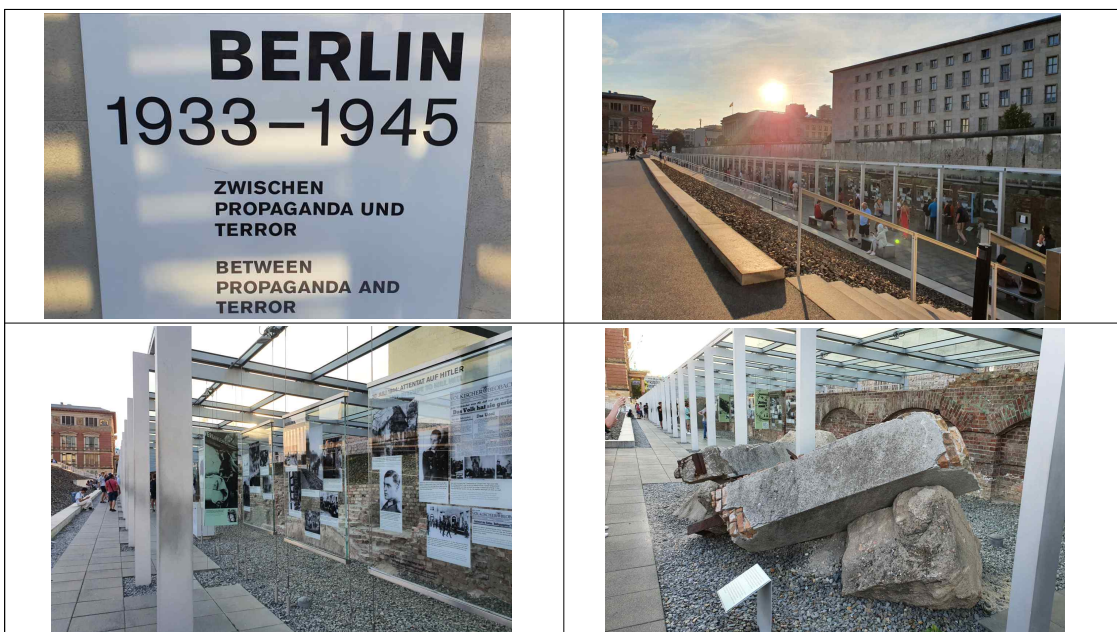
6.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Topography of Terror

□ 일 시: 2022년 8월 12일(금) 10:00-11:00

□ 주요 내용

- (주제) 나치즘과 테러
- (특징)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나치 시대 대부분의 범죄를 계획하고 지도했던 장소에 구성된 전시관으로, 전쟁과 테러로 인해 참혹했던 비극에 관한 사진과 관련 자료들을 전시
 -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이전 1933년부터 1945년 사이 독일 나치 시대의 테러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들을 다루고 있음.
 - 실제로 현존하는 남아있는 베를린 장벽 바로 옆에 관련 전시 패널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쟁 시 파괴된 흔적 또한 남아 있기에 전시내용의 전달력이 극대화됨.
 - 나치즘과 테러에 관한 보도자료, 신문,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를린 장벽 옆을 따라 걸으며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구성
- (시사점)
 - Topography of Terror는 베를린 장벽 바로 옆에 전시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역사 속 실물과 공간이 시각적,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실감하게 했음.
 - GKEDC 역시 건물 자체가 지닌 역사적 스토리와 의미가 있기에 해당 공간을 전시 및 교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건물 외벽 근처나 야외에 건물이 지닌 상징성과 역사, 경제발전 이야기 등에 관한 전시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관련 사진



7.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일 시: 2022년 8월 11일(목) 10:00-11:30

□ 장 소: Blend Berlin

□ 참석자:

- 내부: 김순한, 김민정(직함 생략)
- 외부: 박혜자 1등서기관, 탁무희 1등서기관(이상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주요 내용

- (회의배경) 한-독 수교 140주년인 2023년을 맞아 수교기념 전시 콘셉트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및 양 기관 협력방안 모색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자체적으로 수교기념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기획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강구하기 위해 로고 및 디자인, 슬로건, 어린이그림, 행사 계획 등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2022.8.7. 종료)
 - 당초 독일의 지리학자 에카르트 데게 교수가 촬영한 1960년대 서울 거리 사진을 주제로 한 교류전시를 제안 받았으나 수교행사로서의 적합성을 검토 중에 있음.
- GKEDC는 기관의 설립목적을 소개하고, 현재 기획 중인 수교기념 전시의 기획방향 및 관련 일정 등을 논의
 - GKEDC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타 기관이 주최하는 수교기념 행사와 차별화된 전시 콘셉트를 기획할 계획
 - 기획(안)은 추후 확정 예정(2023년 초 개막 예상)



Option#1
Compa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of two countries after the war focusing on industries and companies (ex: electricity/electronics, steel, automobiles, railways, etc.)



Option#2
Emphasizing the history, present, and futur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using diverse techniques (ex: infographics, panels, and experiential media etc.)



Option#3
Showcasing the human stories (ex: Korean nurses/miners dispatched to West Germany) represen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Tentative title: 'Miracle on the Rhine and Miracle on the Han River')

- (향후 협력방안) 수교기념 전시주제, 시기, 예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 확정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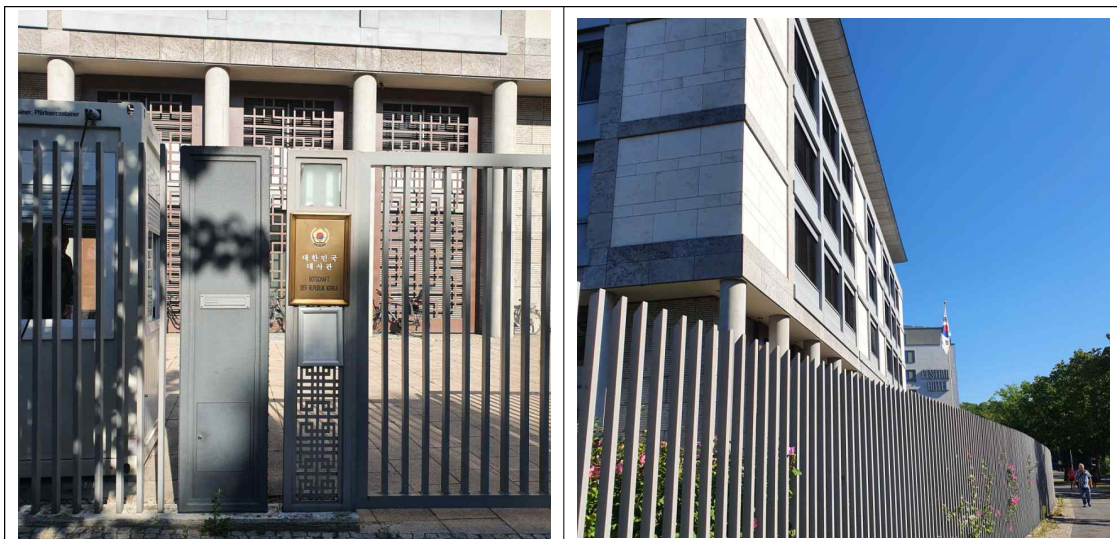
- 대사관의 경우 GKEDC가 수교기념 행사 취지에 적합한 전시주제 및 전시 기획 등을 제안할 경우 검토 후 협력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
- 대사관 측에 따르면 독일 관람객의 경우 패널, 데이터 등의 학술적인 정보와 패널 연출 등과 같은 2D 전시물 관람을 선호하는 편이므로 2020년 세계은행 1층 로비에서 진행하였던 GKEDC 전시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를 전달
- * (세계은행 전시)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전시함으로써 발전의 핵심요인을 공유하고 한국-세계은행 간 협력 과정을 조망(2020. 2. 18. ~ 2020. 2. 20.)
- 주제, 일정 등의 사유로 협력전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기관의 수교 행사 또는 수교전시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추후 협의

WB KOREA INNOVATION WEEK

전시명: 폐허에서 번영으로(From Despair to Prosperity)



□ 관련 사진



8.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일 시: 2022년 8월 11일(목) 14:00-16:30

장 소: KAS Akademie 회의실

참석자:

- 내부: 김순한, 김예림, 김민정 박성환(직함 생략)
- 외부: Matthias Schaefer KAS 알제리 사무소장, Max Duckstein KAS 아태지역 사무 담당관(이상 KAS)

주요 내용

- (회의배경) GKEDC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KAS와 공동사업 추진가능성을 협의
- GKEDC 설립목적, 전시업무 현황 소개 및 전시·교육 사업 관련 양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 강조
- 2023년에 예정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시의 기획방향 전달
 - GKEDC 인지도 제고 및 KAS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요청

- Option#1** Compa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of two countries after the war **focusing on industries and companies** (ex: electricity/electronics, steel, automobiles, railways, etc.)
- Option#2** Emphasizing the **history, present, and futur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using diverse techniques** (ex: infographics, panels, and experiential media etc.)
- Option#3** Showcasing **the human stories** (ex: Korean nurses/miners dispatched to West Germany) **represen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Tentative title: 'Miracle on the Rhine and Miracle on the Han River')



- KAS 측은 GKEDC가 기획하고 있는 수교기념 전시의 세 가지 (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추후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협의함.
 - 특히, 한국과 독일은 초기 산업화의 시기와 양상은 다르지만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한 국가라는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어 양국의 산업발전의 비교는 흥미로운 주제라는 의견을 전달
 -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길 원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휴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전시콘텐츠에 대해 흥미를 드러냄.
- GKEDC가 추진하고자 하는 창업교육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 관련

협업 가능성 여부 확인

- GKEDC 창업교육의 기획을 위해 스타트업 또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질의했으나, KAS측에서는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없었음.
-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에 관해서는 KAS 지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기에 장학생들 중 GKEDC 교육 대상으로 고려될 만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장학생 프로그램 역시 지사별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역 사무소별로 협의해야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KAS 한국사무소와 협의를 해볼 것을 제안함.
- (향후 협력방안) KAS 측은 해당 전시는 주한독일대사관, KAS 한국사무소 등 연계기관이 관심을 갖고, 협력을 원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판단하며, 필요 시 KAS 측 담당자와의 연결을 제안
 - * GKEDC-KAS 알제리 간 공동 역량 강화 워크숍 연계 스타트업 전시 건은 국제협력사업 출장 결과보고서 참조

□ 관련 사진



별첨1 후속조치 관련 기관 관계자 정보

기관명	관계자 성함	연락처/비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박혜자 1등서기관	+49-30-26065-452(사무실) +49-151-2756-5778(휴대폰) haejpark12@mofa.go.kr
	탁무희 1등서기관	+49-30-26065-114(사무실) +49-171-212-2587(휴대폰) mhtak12@mofa.go.kr
KAS	Mattias Schaefer	Matthias.Schaefer@kas.de